

초등학생의 부모 · 교사 · 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Attachment Types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김 분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연실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Master : Bun Kim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 Youn Shil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Reference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group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types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 groups among 6th grade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s. The findings suggest that attachment is highest with one's mothers, followed by peer groups, fathers and teachers.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overall tendencies of children to be attached to their parents, teachers, peer groups, according to their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dition, the tendency of attachment 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 groups according to gender is not meaningful except for peer-group affection between boys and girls. Furthermore, an integrated attachment type is ranked highest, followed by parents attachment type, peer attachment type, and unstable attachment type, in order based on cluster analysis. Finally, each attachment group among students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 초등학생(elementary school student), 애착 유형(attachment type), 자아개념(self-concept),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adjustment)

## I. 서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자기 주위의 최초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 행동양식을 학습한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은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사회화 되어간다. 이후 아동은 유아기와 학령기를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교사·또래 아동과의 관계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간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에서의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의 형태에 따라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인간관계는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불안과 고통을 겪게 한다.

애착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에 걸쳐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뜻하는데(Bower, 1981),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는 많이 노출되는 관계인 부모, 교사, 또래가 애착 형성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부모, 교사, 또래 등 중요한 대상과 관계에서의 조화로운 만족감은 아동의 정서와 인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동은 이들 관계에 따라 사회인으로서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유아기 애착과 가장 차이가 나는 아동기 애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기 애착과 아동기 애착은 그 애착 형성 대상의 범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유아기에는 애착 대상이 주로 일차 양육자인 어머니나 아버지, 그 외 가족관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아동기에는 주요한 생활공간이 되는 학교에서의 교사나 또래에게 까지 애착대상이 확대된다.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터전은 역시 가정에서 제공된다. 가정은 아동에게 최초의 강력한 직접 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는 직접적극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의 한계를 설정하는 환경의 중재자이다(Han, 1985).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긍정적으로 형성된 애착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에 대한 상을 결정하게 하며 사회에 적응하게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한다. 부모나 다른 초기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은 이후 사회적·정서적 관계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Lee, 2005).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애착의 대상은 교사이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논의되는 정보화 시대에서 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교육내용이 아니라 교사와 아동간의 인간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급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교사는 학생인 아동과의 밀도 높은 상호작용을 통

하여 학생 개개인의 흥미·적성·능력·창의성 등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발전시켜 자아실현의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을 경영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Lee, 1999).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와의 애착이 안정된 아동들은 자신감이 있고, 학교환경에 쉽게 적응하며, 교사와 또래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급과업수행을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McDevitt & Ormrod, 2002)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것은 교사와 아동간의 안정된 관계나 애착 형성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을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애착 형성의 대상은 또래들이 차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또래 관계에 관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61.9%가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업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이 동성또래 관계이며, 10.4%의 초등학생은 또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Kim & Kim, 1999). 이러한 또래 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또래 수용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고(Lee & Jung, 1995),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들로부터 잘 수용되고 또래 관계가 긍정적이며(Kerns, Klepac, & Cole, 1996),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관계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2002).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에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고 적응력이 높다고 한다(Ainsworth, 1989). 인생 초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열정적이고 자아회복력이 높으며, 학령 전기에 순종적이고 협동적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Lee, 2005). 자아나 자아개념은 사람의 일상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적응행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Yoon, 1984), 인생 초기에 주변 사람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나 따뜻한 수용과 지지를 통해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가 쉽다고 한다(Kim, 1994).

또한 이와 같이 초기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 아동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도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Kang, Chang, & Jung, 1998). 안정된 애착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변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바탕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나 또래와의 애착 형성은 교사와 또래를 주로 만나게 되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밀접한 연관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어온 애착 관련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수이고 청소년기 초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애착 형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애착 대상을 단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교사, 또래아동 등을 대상으로 복수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주요한 애착 대상들과 복합적으로 어떻게 애착을 형성하는가에 따라 이들의 애착의 내용과 기능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설계에 바탕을 둔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관련된 연구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 애착 유형을 살펴본 Sohn(1998)의 연구,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성격특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본 Kim과 Chun(2003)의 연구,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ee(2008)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초등학생의 애착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교사, 또래아동들과의 애착을 복합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애착관계는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구축된다고 보이는데, 어릴 때부터의 사회화 과정에서 정서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수용이 차별화되어 길러지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초등학생 시기에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포함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Lee(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5,6학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동이 부모, 교사, 또래와 맺는 애착 유형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부모, 교사, 또래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 교사, 또래와의 애착을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애착을 유형별로 군집 분류하고, 이러한 애착유형 집단별로 개인내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기능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가정에서는 부모와, 학교에서는 교사와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는 것이 아동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정립이나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생활적응력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개인적 성장이나, 가정 혹은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교사·또래 애착 및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부모·교사·또래 애착의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교사·또래 애착에 따른 군집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부모·교사·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 교사, 또래와의 애착

애착이란 Bowlby(1973)가 유아의 초기발달에 대한 모성 결핍의 영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정서적 유대를 정의하는 용어이다. 그는 애착을 영아와 양육자 간에 생후 1년 동안에 형성된 특별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애착을 개인과 개인을 차별화시키는 관계에 관한 것이며 개체의 종족보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으로 개체가 주위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영아가 어머니와 애착이 일단 형성되면 성인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고 하였다. Bowlby(1973)는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안정 애착이라 할 수 있고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quoted in Park, 2006). 즉 애착이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추구하고 접근을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회복하려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을 말한다.

영아기와 초기 아동기 동안 부모나 다른 초기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은 이후 사회-정서적 관계에 대한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애착 관계의 안정성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주는 자극의 양, 반응의 민감성 등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 애착 연구들은 영아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의 중요성만을 주로 밝혀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애착의 개념을 평생에 걸쳐 계속 형성, 유지되는 것이라는 전생애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며, 애착 안전성의 연구는 범위가 아버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McCormick & Kennedy, 1994).

영·유아기에서 아동기에 이르는 동안 가족과의 애착은 지속되지만, 점차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시간을 보냄에 따라 친구 및 교사와의 애착이 비중이 증가하기도 한다. 아동기의 친구 및 교사와의 애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동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교사나 친구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동기는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Shon, 1998).

초등학교 고학년, 초기 청소년기가 될수록 가족 내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아동기보다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게 된다. 학동기 아동들은 또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그들의 고민이나 의사 결정에서 부모나 성인의 충고보다 또래와의 의논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또래간의 애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동 후기에는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이 가정 이외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건전한 또래애착은 후에 아동의 사회생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Kim, 2002). 초등학교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학교규범을 지키거나, 학습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서 또래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이 중요한 점은 친구집단과 어울리므로 직접적으로 충족감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다른 아이들도 자신과 똑같은 고민과 갈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식이나 긴장이 감소된다는 데 있다(Choi, 2003). 반면 또래 간에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외로움을 경험하기가 쉽다.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 2.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모든 국면을 자각한 중심조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각이다. 그러므로 자아개념은 한 개인 성격의 중심 영역이며 현상적 자아의 중심부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태도, 신념, 견해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Mead, 1934, quoted in Chang, 1988).

자아개념은 한 시기에 갑자기, 전체 혹은 전부 형식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행된다(Song, 1998). 이러한 자아개념은 개인적인 성취와 인성개발 및 자아실현 등 여러 측면에 걸쳐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감을 갖고, 자신을 능력 있는 존

재로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수행하며, 자신에 대한 비평도 화내지 않고 들을 수 있고,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끼며 도전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 부족은 모든 일을 실패로 이끌고, 결국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위축시킨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활동 속에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로 정의될 수 있다(Compilation Committee on Education Encyclopedia, 1992). 따라서 아동이 교과활동, 학급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학교생활적응이 잘 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Min, 1994).

Kim(1987)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욕구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 조건을 바르게 수용하고 학교 상황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의 정도라 정의하였다. 그 하위 요인으로 학교환경 적응, 학교 교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즉 학생이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친구 및 교사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수업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여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 나가는 정도를 학교생활 적응이라 하였다. An(1984)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선행연구 중에서 학교생활적응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과의 관계 등(Chu, 1998; Kim, 1997; Shon, 1986)이 보고되고 있다.

## 4. 애착,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먼저, 애착과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 보고식 적

도를 이용해 학동기 및 청소년기 애착을 알아본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에 대한 지각이 심리적 안정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높았으며, 낮은 경우 분노 소외감이 높았다. McCormick과 Kennedy(1994)는 후기 청소년기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부모-아동 애착의 질이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며, 애착의 질과 자존감이 유의하게 관련됨을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는 부모-아동의 애착관계는 아동 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Kerns, Klepac과 Cole(1996)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애착은 후기의 자아개념을 높이고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Cooper, Shaver와 Collins(1998)은 13세에서 19세에 이르는 1,98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증후, 자아개념, 위험행동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안정애착아 집단의 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이 가장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에 적응적으로 대처했고 자기 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Chung과 Oh(1993)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서로 관련 있음을 밝혔고 부모의 애착이 잘된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Lee, Suh와 Shin(2000)은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애착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학령기에 들어서 아동들의 사회적 생활에서 경험하는 타인들의 거부에 대한 민감성, 또래관계에서의 수용, 거부와 관련이 있는가를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들은 거부민감성이 증가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더 쉽게 지각하고 불안과 분노를 더 느끼고 과민 반응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이 감소되었으며,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대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따라서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어 실제 대인관계에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01)의 연구에서도 애착은 자아회복력, 유능감, 그리고 자기확신감의 지표로 나타났으며, Park과 Cheon(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교사와의 애착과 자아개념을 살펴본 Yoon(1984)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규제, 통제, 억압 등의 태도는 학생의 자아개념을 저하시키고, 반대로 수용, 이해, 허용을 하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교사에 대한 지각 점수가 상위인 집단 즉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의 집단이 자아개념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Kim, 1992).

다음으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Bowlby(1973)는 유아기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가 일생을 두고 지속되고, 일단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은 청소년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이 높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하였다. 국내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o(1995)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hung과 Moon(2007)은 학교생활적응에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모두 관련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모, 교사, 또래와의 애착이 원만하게 형성될 때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간접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

교사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애착유형에 따른 교사·학생과의 관계 및 친사회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Kim(2002)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애착 유형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및 친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Lee(2003)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 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아동이 지각한 교사 행동이 긍정적인 집단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척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였다.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면, 4학년과 6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와 문제행동을 조사한 Han과 Yoo(1996)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낮은 수준의 불안, 위축, 미성숙한 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래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주며,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Koh, Kim, & Noh, 2000). Lee(2000)는 아동은 또래 간에 인정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학교를 선호하고, 특히 또래간의 인정과 원조가 아동의 학교에서의 정서적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안정적 애착을 통해 유지될수록 학교생활이 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A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32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0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소요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부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연구자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Sullivan (1953, quoted in Choi, 2006)의 대인관계이론에 따라 이 시기의 아동들이 또래관계 중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욕구가 증가하여 단짝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고, Selman(1980, quoted in Choi, 2006)의 조망수용이론에 따라 이 시기에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quoted in Choi, 2006). 주로 동성친구들과 어울려 단짝친구관계를 활발히 형성하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할 만큼 성숙된 학년은 초등학생 중 가장 고학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0명 중 무성의하게 답변한 23명을 자료를 제외한 29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148명(49.8%), 여학생이 149명(50.2%)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가 비슷하였으며 총 297명이었다. 형제순위는 첫째가 124명(41.8%), 막내가 119명(40.1%), 외동이 38명(12.8%), 중간이 16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33명(78.5%)의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 형편을 중간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169명(56.9%), 151명(50.8%)으로 나왔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부모애착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만 11~12세 아동에게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Park(2006)의 척도 중 부모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의사소통(8문항), 신뢰감(8문항), 소외감(8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유형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4~120점이며, 부 애착과 모 애착의 점수를 따로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나 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부 애착은 Cronbach's  $\alpha = .66$ 이며 모 애착은 Cronbach's  $\alpha = .69$ 이다.

2) 교사애착

아동의 교사에 대한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Gullone와 Robinson(2005)이 개발한 아동용 부모 및 또래애착 검사(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Revised for Children : IPPA-R)를 번안 사용한 Lee와 Bae(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의사소통(9문항), 신뢰감(9문항), 소외감(8문항)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유형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6~1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60$ 이다.

3)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에 대한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를 번안한 Ok(1998)의 또래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의사소통(8문항), 신뢰감(9문항), 소외감(8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유형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다.

4)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자아개념 검사는 Kim(1992)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인 6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문장을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학업적 자아개념(8문항), 정서적 자아개념(8문항), 사회적 자아개념(10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 = 297)

Variable	Frequency	(%)	
Sex	Male	149	(49.8)
	Female	148	(50.2)
Living with parents	Father+Mother	281	(96.6)
	Other	16	( 5.4)
Birth order	Only Child	38	(12.8)
	First	124	(41.8)
	Middle + Youngest	135	(45.5)
Perceived SES	Upper	58	(19.5)
	Middle	232	(78.1)
	Lower	6	( 2.0)
	No answer	1	( 0.3)
Father's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5	(25.3)
	More than college	217	(73.1)
	No answer	5	( 1.7)
Mother's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02	(34.3)
	More than college	189	(63.6)
	No answer	6	( 2.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arents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elf-concept, school life adjustment (N = 297)

Variable	Mean(SD)	Total mean(SD)	Distribution	Number of items
Father attachment	3.03(0.33)	78.70(8.50)	44-99	24
Mother attachment	3.43(0.33)	82.26(8.52)	49-105	24
Teacher attachment	2.87(0.32)	74.54(8.33)	38-111	26
Peer attachment	3.19(0.44)	79.71(11.16)	45-110	25
Self-concept	3.23(0.46)	83.91(12.10)	60-119	26
School life adjustment	3.24(0.54)	77.79(13.09)	41-120	24

\*\*\* $P < .001$ 

문항)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유형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6~1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자아개념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이다.

#### 5)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는 Min(1991)의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5문항), 학교 친구에 대한 적응(5문항), 학습에 대한 적응(4문항), 학교 규칙에 대한 적응(5문항), 학교 행사에 대한 적응(5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유형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의 경향을 알아보고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 교사 또래 애착에 따른 군집 유형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군집방법(K-means)을 실시하였다.

넷째, 군집유형에 따른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부모, 교사, 또래 애착,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 경향

부모, 교사, 또래 애착,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포를 살펴보았다(Table 2 참조).

먼저 애착점수의 평균은 어머니애착(3.43), 또래애착(3.19), 아버지애착(3.03), 교사애착(2.87) 순으로 어머니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애착보다 또래애착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3.23, 학교생활적응 평균점수는 3.24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이나 학교생활적응은 중간 이상의 점수 수준을 보여준다.

### 2.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의 경향

조사대상자의 부모, 교사, 또래에 대한 애착 정도의 경향을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아동이 아버지애착 79.18점, 여자아동은 아버지애착 78.21점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애착은 남자아동이 81.87점, 여자아동이 82.64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교사애착은 남자아동이 74.58점, 여자아동이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t$  value of subject's parents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ccording to sex (N = 297)

Variable	Boy Mean(SD)	Girl Mean(SD)	Total mean(SD)	$t$ value
Father attachment	79.18(8.37)	78.21(8.63)	78.70(8.50)	.98
Mother attachment	81.87(8.42)	82.64(8.62)	82.26(8.52)	-.78
Teacher attachment	74.58(8.31)	74.50(8.37)	74.54(8.33)	.08
Peer attachment	76.90(10.77)	82.52(10.66)	79.71(11.16)	-4.52***

\*\*\* $P < .001$

Table 4.  
Result of cluster analysis (N = 297)

Variable	Cluster(1)	Cluster(2)	Cluster(3)	Cluster(4)	F
Father attachment	2.67	2.92	3.10	3.33	80.59***
Mother attachment	2.73	3.04	3.29	3.47	142.21***
Teacher attachment	2.59	2.85	2.81	3.14	44.62***
Peer attachment	2.70	3.34	2.89	3.68	199.35***
Cluster name	Unstable attachment type (n = 50)	Peer attachment type (n = 91)	Parents attachment type (n = 84)	Integrated attachment type (n = 72)	

\*\*\*P < .001

74.50점으로 이 역시 아버지애착, 어머니애착과 함께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으나, 또래애착( $t = -4.52, p < 0.001$ )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아동이 82.52점, 남자아동이 76.90점으로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또래에 대한 애착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 3. 부모, 교사, 또래 애착의 군집유형

초등학생의 애착 대상에 따른 군집 유형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방법(K-means)을 실시하였다. 군집수의 결정은 군집들의 크기가 고르게 분산된 정도와 군집들 간의 유사성이 최소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 Table 4는 애착 유형별 4개의 군집 간 평균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군집명은 각 애착 요인에 따라 ‘통합애착형’, ‘부모애착형’, ‘또래애착형’, ‘불안정애착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유형 1은 부모, 교사, 또래애착이 모두 부진하게 발달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부모, 교사, 또래 모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불안정애착형이다. 군집유형 2는 부모애착 중 모애착이 부애착과 교사애착보다 높긴 하나 또래애착이 더 두드러지게 발달되었으므로, 또래애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유형 3은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부진한 발달 특성을 보이면서 부모애착이 특히 높게 발달된 특성을 보이므로, 주로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한 부모애착형이다. 군집유형 4는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이 모두 발달된 특성을 보이므로 통합애착형의 특성을 보이므로, 부모, 교사, 또래와의 애착이 고루 잘 형성된 통합애착형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는 부모나 또래에 더 두드러지게 애착이 형성된 유형은 있었으나, 교사에게 집중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 4. 애착 군집유형별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

#### 1) 군집 유형별 자아개념

군집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 유형별 자아개념( $F = 31.48, p < .001$ )은 불안정애착형, 또래애착과 부모애착형, 그리고 통합애착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애착형’ (3.58), ‘부모애착형’ (3.30), ‘또래애착형’ (3.15), ‘불안정애착형’ (2.88) 순으로 자아개념이 발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통합애착형의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불안정애착형의 자아개념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어, 부모, 교사, 또래와의 고른 애착은 아동에게 있어 자아개념 수준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형과 또래애착형은 자아개념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self-concept according to cluster type (N = 297)

Cluster type	Self-concept Mean(SD)	F	Duncan Test
Unstable attachment type	2.88(0.34)	31.48***	a
Peer attachment type	3.15(0.47)		b
Parents attachment type	3.30(0.34)		b
Integrated attachment type	3.58(0.43)		c

\*\*\*P < .001

#### 2) 군집 유형별 학교생활적응

군집 유형별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유형별 학교생활적응( $F = 31.49, p < .001$ )은 불안정애착형, 또래애착과 부모애착형, 그리고 통합애착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은 ‘통합애착형’, ‘또래집단형’, ‘부모애착형’, ‘불안정애착형’ 순으로 발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위에서 살펴 본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통합애착형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가장 높고 불안정애착형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이 가장 낮으므로, 부모, 교사, 또래와의 애착을 잘 형성할 때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부모애착형과 또래애착형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cluster type (N = 297)

Cluster type	School life adjustment Mean(SD)	F	Duncan Test
Unstable attachment type	2.93(0.44)	31.49***	a
Peer attachment type	3.19(0.42)		b
Parents attachment type	3.17(0.52)		b
Integrated attachment type	3.60(0.59)		c

\*\*\*P < .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 6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 유형별로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 또래와 맺는 애착 관계가 아동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적응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개인, 가정,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 및 자아개념,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애착, 또래애착, 아버지애착, 교사애착 순으로 어머니애착이 가장 높다.

둘째,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애착, 또래애착, 아버지애착, 교사애착이 유의미하지 않으나, 남아아동과 여자아동은 또래애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자아동의 또래애착이 더 높다.

셋째,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에 따른 군집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보면, 초등학생의 애착 군집 유형은 부모, 교사, 또래 애착이 모두 발달된 '통합애착형', 부모애착이 발달되고 교사, 또래애착은 부모애착보다 미흡한 '부모애착형', 또래애착은 발달되었으나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은 또래애착보다 미흡한 '또래애착형', 부모·교사·또래애착이 모두 발달되지 못한 '불안정애착형'으로 나타난다.

넷째, 군집 유형별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통합애착형', '부모애착형', '또래애착형', '불안정애착형' 순으로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다. 군집 유형별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통합애착형', '또래애착형', '부모애

착형', '불안정애착형' 순으로 학교생활적응의 점수가 높다.

이와 같은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은 전반적으로 어머니, 또래, 아버지, 교사 순으로 애착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가 주된 초기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아버지보다 또래와의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동이 학동기에 들어서면서 직장 등으로 바쁜 아버지들과의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대신에 자신의 또래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교사와의 애착은 부모나 또래에 비하여 낮은데 이는 부모나 또래가 심리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비하여 교사는 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 등의 측면과 연관되어 더 거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초등학생 아동의 애착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다음에 또래와의 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선행연구 결과가 있는데, Lee와 Bae(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호혜적 행동(공유하기)을 비교적 많이 하는 반면 부적 행동은 더 적게 하며, 어머니와 안정된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 더 협동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의 영향력이 유아기에서 아동에게까지 지속되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와도 원만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어머니와의 애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또래와의 애착이 높은 현상이 이러한 측면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경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이나, 교사애착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또래애착에서 차이가 나타나, 여자아동이 남아아동보다 또래애착의 점수가 더 높았다. 부모 애착에서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심리정서적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인 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초등학생은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필요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또래 애착에서 여자아동이 남아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Shim(2004), Choi(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남아 아동의 경우 대부분 이동시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자아동들은 동성 친구들과 집단 이동이 빈번하다고 보고한다. 예를 들면 보건실이나 화장실을 갈 때 혼자 가는 경우보다 함께 가거나, 또래 친구를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여자아동들이 남자 아동들 보다 또래 간의 영향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에 따른 군집분석을

한 결과, '통합애착형'과 '부모애착형', '또래애착형', '불안정애착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모애착이 '통합애착형', '부모애착형', '또래애착형'에서 공통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생애초기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기, 초기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모애착이 발달되어야 교사애착과 또래애착이 발달됨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 관계가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Koh, 1984)와 '성인과 또래간의 아이들의 관계형성'에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 역시 불안정한 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Kim, 2002; Lee & Bae,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애착이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애착 형성의 근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동기 아동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게서 교사와의 애착을 밀도 있게 형성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동기 아동과 교사와의 심리정서적 유대의 강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 받을 수 있다.

넷째, 군집유형별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통합애착형', '부모애착형', '또래애착형', '불안정애착형' 순으로 자아개념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통합애착형', '부모애착형', '또래애착형'에서는 부모애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Chung과 Oh(1993)의 연구에서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서로 관련 있음을 밝혔고 부모의 애착이 잘된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ang(1997)과 Park(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였다. 외국연구에서도 Armsden과 Greenberg(1987)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경우 자기존중감이 높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많으며 적응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McCormick과 Kennedy(1994)도 애착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과 자존감이 높고 정서적 적응이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애착의 관계를 통하여 자아개념을 설명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애착이론가들이 입증한 바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의 초기에 형성한 애착안정성이 내적 실행모형을 형성하여 유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에도 지속되어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군집 유형별 학교생활적응은 '통합애착형', '또래애착형', '부모애착형', '불안정애착형' 순으로 발달되는데,

이를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에서 부모애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자존감 및 자기 표현력이 높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서는 '또래애착형'이 '통합애착형' 다음으로 점수가 높는데, 이는 또래 관계의 친숙도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또래 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게 형성될수록 아동의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발달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밝힌 Sullivan(1953, quoted in Choi, 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동기 아동에서 교사와의 애착이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교사는 부모나 친구와 같은 다른 대상과 함께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와 불안정한 관계를 형성한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애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애착이 부각되지 못하는 점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표집에서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표집은 특정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급담임교사와 아동과의 애착관계 연구를 위해 다양한 학급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표집이 요구된다.

둘째, 애착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정 방법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법 외에 면접법, 교사나 부모의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보고자에 의한 답변을 통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애착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착유형에 따른 군집 분석을 하여 유형별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연구를 확장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유형별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거나 및 학교생활적응을 높이

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 생활지도의 실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4-5), 709-716.
- An, Y-B. (1984).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variables of adjustive and maladjustive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uk University, Seoul, Korea.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ower, G. H. (1981). Model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Chang, E-Y. (1988). The effects of interactional environmen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on student's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ang, H-S. (1997). Life-span model of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across generations: The review of attachment studies in the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Development*, 16(1), 80-97.
- Choi, J-E. (2003).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M-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peer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u, H-J. (1998).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to school life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H-H., & Oh, M-K.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 attachment and self-concep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1), 85-95.
- Chung, M-Y., & Moon, H-J. (2007).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37-54.
- Compilation Committee on Education Encyclopedia (1992). *Education encyclopedia*. Seoul: Gyoyukseogwan.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87.
- Gullone, E., & Robinson, K. (2005).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IPPA-R)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1), 67-76.
- Han, C-H. (1985). The analysis on relationship of home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wit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an, M-H., & Yoo, A-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Hong, J-Y. (2002). The rela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ttachment to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wang, S-P. (1997). A study on relationship of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in the human relationship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eoul, Korea.
- Kang, M-H., Chang, Y-J., & Jung, J-O. (1998). *Child mental health*. Seoul: Jungmins.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Kim, C-K., & Chun, G-S.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parents,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Research*, 16(2), 1-20.
- Kim, E-H. (1992). The types of teacher's leadership perceived by students and their self-concep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H. (1997).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Korea.
- Kim, K-J. (1994). The effects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S. (2002). The effects of childrens' attachment type on teachers-students relationship and pro-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Kim, T-H., & Kim, I-K. (1999). *Adolescence's peer relationship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Kim, Y-L. (2002). A study on the not-divorced-family children's recognitions of divorce and peer-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R. (1987).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self-concept and anxiety toward academic achievemen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 33-79.
- Koh, K-A. (1984).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social cognitive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h, Y-J., Kim, Y-S., & Noh, J-S. (2000). Contribution of behavioral disturbanc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to the self: Perceived social competence i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12(2), 65-78.
- Lee, B-J. (1999). *Introduction to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eoul: Mooneumsa.
- Lee, H-R. (2000). A study on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their family environ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H-S. (2000). The effect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on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H-Y., & Bae, H-S. (2007).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eacher to the social compete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5(2), 127-143.
- Lee, J-L. (2008). The influence of attachments to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on delinquenci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4), 27-40.
- Lee, K-S., Suh, S-J., & Shin, Y-J. (2000).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parents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peer relation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ce Psychiatry*, 11(1), 51-59.
- Lee, S., & Jung, M-J. (1995). A study on the peer acceptance of children and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2), 94-113.
- Lee, S-H. (2005). The influenc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Lee, S-J. (2003). The effects of teacher's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on their self-esteem and

-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cDevitt, M. T., & Ormrod, E. (2002).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NJ: Prentice Hall, Inc.
- Min, B-S. (1991). The effects of school life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Min, Y-S. (1994).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Mooneumsa.
- Ok, J.(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J. (2001). The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and self-image on depression in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W-M., & Cheon, S-M. (2008). A study on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School*, 5(1), 41-59.
- Park, Y-K. (2006). The model verification of parental attachment,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the peer relationships in the 6th gr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Shim, S-J. (2004). Th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school life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on, J-B. (198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life experience discontinuity, adjustment and self-identity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 Shon, H-S. (1998). A study on infant's self-concept and sociality according to compositive attachment types with mother and teac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I-S. (1998). *Inquiry on human's self- concept*. Seoul: Hakjisa.
- Yoo Y-H. (1995).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school adjustment,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Yoon, H-J. (198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class atmosphere and children's self-concep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접 수 일 : 2010년 12월 28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8일